



I. 세계에너지 需給전망

계획기간중 세계경제는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선진국의 경우는 연평균 3% 수준으로, 開發國은 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에너지·자원부분) 개요

尹 鍾 敏

〈동력자원부 에너지정책과·행정사무관〉

〈表 - 1〉 세계경제성장 展望

(單位: 연평균성장률, %)

	1970년대	1982 - 1986	1987 - 1991
세 계	3.7	2.6	3.2
선 진 국	3.3	2.5	3.2
개 도 국	5.3	2.8	4.1

〈資料〉 WEFA, DRI 종합

세계에너지정책은 세계경제의 성장, 인구, 原油가격을 비롯한 에너지가격동향과 세계각국의 에너지정책등 많은 불확실성 요인의 내재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에너지수요는 대체로 제2차 석유위기 이후의 추세가 연장되어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늘어나 자유세계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2.3% 정도의 증가가 전망된다.

석유의존도는 石油에 대한 소비절약 노력과 石油대체의 진전으로 1985년의 45% 수준에서 2000년경에는 41% 수준으로 저하될 전망이다. 石油수요는 절대량면에서 OECD권은 대체로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할 것이나, 개도국의 경우는 수송과 석유화학공업등 石油를 필수로 하는 산업의 성장으로 石油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세계 자체의 석유수요량은 절대량으로는 증가될 것이지만, 신장울면에서는 他에너지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表 - 2〉 自由世界 에너지 수급전망

(單位 : 연평균증가율, %)

	80-82	83-85	86-90	90-2000
O E C D	△ 2.7	1.5	1.7	1.7
개 도 국	5.1	3.6	3.8	4.5
자 유 세 계	△ 1.3	2.0	2.3	2.5

〈資料〉 BP, IEA 종합

기타에너지원의 구성을 보면, 석탄은 1985년의 22%에서 2000년에는 25%로 증대될 전망이며, 원자력 역시 증대되어 현재의 6% 수준에서 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규모 수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은 절대량 및 구성비 양면에서 증가될 것이 전망된다.

II. 계획기간중 우리나라 에너지수급전망

1991년도의 총에너지수요는 石油환산 79,109천톤에 이르러 제6차계획기간중에 연평균 5.1%씩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GNP에 대한 에너지탄성値는 5차계획기간중의 0.71에서 6차계획기간중에는 0.70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에너지/GNP투입비중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과 부가가치율 개선에 따라 1986년의 0.76에서 1991년에는 0.6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도 美國이나 日本등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앞

으로도 계속 기술혁신등에 의한 에너지 소비절약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石油의존도는 脫石油전원개발추진과 LNG의 신규도입으로 계속 감소하나, 석유수요는 국내부존의 제약으로 인하여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1986년의 석유환산 1.49톤에서 1991년에는 1.79에 달할 것이며, 1인당 전력소비 또한 1986년의 1.31kwh에서 1991년에는 1.75kwh로 늘어날 전망이다.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는 계획기간말 기준으로 石油 46.0%, 무연탄 16.0%, 유연탄 16.5%, 原子力 15.0%, 水力 1.1%, 신탄·기타 2.0%, LNG 3.2% 등의 소비구조를 보여 6차계획기간중에도 石油가 계속 주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것이나, 원자력, LNG 등의 구성비율이 높아지면서 에너지源 다원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기반이 한층 다져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부문별 소비구조는 계획기간말 기준으로 산업부문 41.5%, 수송부문 19.6%, 가정·상업부문 32.8%, 공공·기타부문 6.1%의 구성비를 보여 가정·상업부문의 비중이 점차 축소하는데 반해 수송부문과 산업부문의 구성비가 높아져 양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III. 에너지·자원부문의 주요정책과제

에너지·자원정책의 핵심은 안정성과 경제성의 합리적 조화에 있다. 앞으로 국민경제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국

〈表 - 3〉 6 차계획기간중 에너지관련 總量指標

	단 위	1981	1986	1991	연평균변화율(%)	
					5 차기간	6 차기간
總 에 너 지 수 요	千TOE	46,052	61,790	79,109	6.1	5.1
最 終 에 너 지 수 요	"	39,307	50,756	64,086	5.2	4.8
에너지/GNP投入비중	TOE/1985 백만원 (1981=100)	0.856 (100)	0.757 (88.4)	0.682 (79.7)	△ 2.4	△ 2.1
에너지/GNP탄성値		1.5	0.75	0.66		
石油依存度	%	58.4	48.3	46.0	—	—
1인당 에너지수요	TOE/人	1.189	1.486	1.794	—	—
1인당電力수요	GWH/人	0.915	1.313	1.746	—	—

〈表 - 4〉 總에너지 수요전망

		단 위	1986	구성비 (%)	1987	구성비 (%)	1991	구성비 (%)	1987-91 연평균증가율 (%)		
石	油	千배럴	209,020 (29,815)	48.3	207,506 (29,383)	45.2	259,053 (36,394)	46.0	4.4		
無	煙	炭	千 톤	19.9	26,565 (12,542)	19.3	27,270 (12,694)	16.0	0.9		
有	煙	炭	千 톤	16.9	16,023 (10,575)	16.3	19,820 (13,081)	16.5	4.6		
水	力	GWH	4,300 (1,075)	1.7	3,030 (758)	1.2	3,558 (889)	1.1	△ 3.7		
原	子	力	GWH	10.0	31,347 (7,837)	12.1	47,503 (11,876)	15.0	14.1		
L	N	G	千 톤	0.3	1,602 (2,083)	3.2	1,970 (2,561)	3.2	66.9		
薪	炭	및	기	타	千TOE	1,811	2.9	1,763	2.7	△ 2.3	
總	에	너	지	千TOE	61,790	100.0	64,940	100.0	79,109	100.0	5.1
電	力	GWH	54,574 (4,693)		58,620 (5,041)		77,010 (6,623)			7.1	

註: ()内는 石油換算 千톤임.

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국내 에너지·자원이 빈약하여 해외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소요에너지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1. 에너지 소비절약의 가속화

에너지소비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산업부문에 있어서는 에너지 저소비형산업구조로의 개편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에너지 다소비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에너지 관리진단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다소비공장의 업종전환 또는 해외투자를 권고하여 전 산업 중 저소비업종의 비중을 1985년의 50.3%에서 1991년에는 55.1% 수준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다.

가정·서비스부문에 있어서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보급 확대토록 하며, 특히 주택의 단열보급률이 선진국의 경우 90% 이상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5% 수

준에 불과하므로 1991년까지 55% 이상으로 제고시켜나갈 것이다. 한편, 지역난방방식을 대도시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토록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은 전국 수송물량을 수단별로 합리적으로 전가·분담하고, 특히 대량화물의 철도수송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 보조장비의 개발·보급에 역점을 두며, 노후시설의 개체등으로 수송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2. 안정적 에너지·자원수급기반의 확립

소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공급을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원자력 발전 및 유연탄대체등 石油대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의존도를 1986년의 48.3%에서 1991년까지 46.0% 수준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한편, 소요에너지의 지속적인 장기안정기반을 더욱 다져나가기 위하여 국내의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수급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重質油분해시설의 확충, 전력부하관리의 효율화 및 연탄수요관리의 적정화방안을 검토·추진할 것이다.

3. 에너지·자원공급의 경제성제고

소요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경제성을 제고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 에너지·자원시장의 여건변동에 관한 정보체계를 강화하여 장기계약, 현물시장, 개발 수입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선물시장활용방안을 검토, 추진하는 한편, 수입물량의 대형화 및 경제규모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원개발계획은 정기적으로 여건변화에 연동화시켜 전력수급계획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전력설비의 국산화 및 표준화를 촉진하여 전력설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 추진할 것이다.

4. 에너지부문의 단계적 자율화 확대

에너지산업은 국제화에 대비하여 관련기업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제고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정부의 규제와 간여를 극소화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 촉진으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대민서비스를 향상토록 촉진한다. 아울러 에너지원간 및 동질 에너지내의 상대가격구조의 적정화로 자원배분의 합리화와 에너지절약 촉진을 유도한다.

5. 에너지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에너지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를 확대하여 에너지절약형기기 및 공정개선, 원자력발전기술의 자립, 폐열이용 및 석탄이용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신·재생에너지관련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육성기금의 설치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검토할 것이다.

한편, 국민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에너지 품질의 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類似휘발유의 유통을 방지하고 양질의 電力을 공급토록 하며, 石炭 품질향상을 기해 나갈 것이다.

6. 안전관리 및 환경보전

에너지관련 안전관리와 환경보전대책을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특히 LNG 도입과 더불어 전국적인 가스보급망 확충에 따라 공급자와 사용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및 검사기능을 강화하며, 가스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인력을 양성해나갈 것

이다. 한편 광산보안관리를 위하여 보안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중앙집중감시체계를 보급하는등 보안 시설의 현대화를 비롯, 연탄가스 사고방지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또한 환경보전대책을 강화하여 폐적한 작업 및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도시공해방지를 위하여는 低硫黃油의 공급을 확대하고, 無鉛휘발유를 생산·공급하며 가스보급 확대를 통하여 연탄중심의 가정연료 수급구조를 개선하고 도심지 소재 연탄공장을 단계적으로 외곽지대로 이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발전소 입지에 대한 환경순회계를 실시하고 폐석, 폐수 및 광해방지사업을 확대하며, 유연탄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하여 나갈 것이다.

IV. 에너지·자원별 추진계획

1. 石油部門

(1) 原油도입의 효율성제고

原油도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운용목표를 소요원유의 안정확보와 低價도입에 두고, 직접적인 원유확보 보다는 제도적인 지원시책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장·단기원유수급환경에 대응한 원유도입정책수립, 산유국과의 자원외교강화, 石油정보체제 보강등에 주력하여 갈 것이다.

한편 原油도입은 장기계약에 의한 도입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현물시장을 탄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原油도입의 경제성을 최대한 도모하고, 中東의 정치·경제적 불안요인을 감안하여 原油導入先 다변화 시책은 中東지역의 원유공급 잠재력 및 中東원유의 국내정체설비 적합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다.

(2) 石油비축

石油비축사업은 국제석유시황, 油田개발성과, 원유도입선 다변화등 제반여건을 감안, 적정수준의 비축이 유지되도록 신속적인 운영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3) 유전개발사업

1990년대 이후에는 세계石油시장에서 공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정부는 소요원유의 안정공

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도까지 石油의 자주공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국내대륙봉의 자주개발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점진적 해외油田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4) 低硫黃油 공급확대

1988년 올림픽기간중 서울지역에 공급하는 輕油의 유황함량을 0.4% 이하에서 0.2% 이하로, B-C油는 1.6% 이하에서 1.0% 이하로 낮추어 공급할 계획이며, 1990년 이후에는 B-C油 전량을 1.6% 이하로 공급하고 주요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유황함량 0.2% 이하의 輕油 및 1.0% 이하의 B-C油를 공급확대할 계획이다.

(5) 無鉛휘발유 생산·공급

신규차량 증가에 따라 총 휘발유차량의 수요에 대한 無鉛휘발유의 수요비율은 1987년 하반기에 4.0%, 1988년에는 11.8%가 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1987년 7월부터 無鉛휘발유 사용 신규자동차 생산에 맞추어 無鉛휘발유를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공급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6) 장거리송유관 건설

수용한계를 넘어선 석유류 수송수요의 애로요인을 타개하고, 수송비 절감을 통한 석유제품의 가격인상 억제에 위하여 장거리 송유관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거리 송유관 건설에는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므로 계획기간중에는 우선 瑞山-天安 구간의 송유관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타구간은 계획기간의 후반에 가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다.

(7) 정유산업의 구조개선

석유수급구조의 輕質化추세에 따라 정유시설의 구조조정이 요구될 뿐 아니라, 종합에너지산업으로 정유산업을 육성토록 하는 한편, 油價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2. 가스부문

(1) 수급의 안정

에너지수급구조의 개편, 국민소득 수준증가에 따른 편

익추구와 공해방지대책의 강화에 따라 계획기간중 가스 수요가 연평균 24.1%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요물량의 안정확보를 위해서 적기에 적량의 가스를 수입,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中東產 LPG의 감량공급에 대처하기 위해 소요대비 10% 내외의 여유물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중동 지역으로의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할 것이다.

(2) 가스보급의 확대

LPG도입과 88올림픽에 대비한 도시환경대책의 일환으로 京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가스보급을 확대하여 가정연료의 가스화, 대형건물의 냉·난방용과 산업용 연료의 가스화를 추진하고 전국을 5개지역(京仁, 충청, 영남, 호남, 강원)으로 구분, 京仁지역과 忠淸지역은 LNG 중심으로, 기타지역은 LPG 중심으로 공급토록 하여 가스보급률을 1986년의 28% 수준에서 1991년에는 5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안전관리 강화 및 유통구조의 현대화

가스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안전관리문제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행정지도와 검사등에 의존하던 타율적인 규제중심의 안전관리체제를 공급자와 사용자에 의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율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한편, 소비자의 가스사용상 편의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LPG유통구조를 현대화하고 공급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4) 가격체계의 합리화

석유제품가격의 자율화와 관련하여 가스가격도 장기적으로는 시장경계원리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국제가격수준에 접근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는 바, LPG와 LNG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소비부문별 사용연료와의 가격경쟁과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가격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3. 전력부문

(1) 발전소 건설계획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6차계획기간중에는 전력수요증가율이 7.1%

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총 발전설비는 1986년의 18,059천kw에서 계획기간중에 7기 3,106천kw가 건설되며, 9기 4,534천kw가 착공되어 1991년에는 20,994천kw가 될 전망이다.

(表 - 5) 電力수급 전망

(단위 : 천KW)

	1986	1987	1991	1987 - 1991 연평균증가 율 (%)
시설용량	18,059	19,110	20,994	5.4
공급능력	13,821	15,661	18,271	8.3
최대수요	10,165	10,982	14,427	9.1
예비전력	3,656	4,679	3,814	
예비율(%)	36.0	42.6	26.6	

(2) 설비별 발전계획

1991년의 총발전량은 88,468GWH로서 1986년의 63,785GWH에 비해 약 1.4배가 증가될 전망이며, 脫石油정책에 의해 원자력의 발전비중이 대폭 확대되어 1986년의 38.6%에서 1991년에는 53.8%로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3) 전력부하의 관리

전력설비의 효율성제고와 설비투자수요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력부하관리기법의 도입과 활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주간수요의 심야전력 사용유도를 위한 심야전력요금의 조정, 사용기기의 개발 및 보급·확대하는 한편, 예상외의 수요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부하차단등 직접 부하관리기법의 연구 및 실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4) 발전소 건설 기술자립

발전소 건설기술의 자립은 1990년 후반까지 달성토록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 계약방식을 국내업체를 분야별 주계약자로 활용하여, 기술분담체제를 확립하며, 외자도입을 기술도입위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 11, 12호기를 모형발전소로 하여 후속기부터 이 표준설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핵연료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8년까지 연산 200톤규모의 경수로형 핵연료성형가공공

장을 건설하며, 1987년부터 연산 100톤 규모의 중수로 핵연료성형가공공장을 가동한다.

(5) 송·배전 설비의 확충 및 개선

발전설비의 증가에 따라 송·배전설비의 균형적 확충으로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기간송전계통 345KV 환상계통망으로 구성하고 전력공급증대에 대비하여 345KV급을 800KV급 초고압으로의 격상을 검토하여 송·배전설비의 대형화 및 전압계층의 단순화로 용지점용의 최소화 및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해 나간다.

4. 석 탄

(1) 무연탄

가. 합리적인 생산기반의 구축

6차계획기간중 무연탄 수요는 5차계획기간의 수요증가율 4% 보다 줄어든 0.9%씩 증가하여 1991년에는 27,270천톤으로 예상되나, 국내 무연탄 생산의 한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합리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안정공급과 석탄산업의 안정성장을 위하여 탐사사업의 확대에 매장량을 최대 확보토록 하여 광구의 대단위화로 개발계획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채탄기계화율을 1986년의 36%에서 1991년에는 57% 이상으로 제고하여 생산성 향상과 보안사고의 감축은 물론 심부채탄으로 국내자원의 최대생산·활용을 도모토록 할 것이다.

나. 광산지역 후생복지사업

경제성장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광산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2단계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사업을 1987년부터 계속 추진하여 정부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이러한 사업을 종합적 지역개발정책의 일환으로서 광산지역이 타지역 중소도시와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도모하고 광산근로자의 사기진작으로 탄광안정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 석탄수급의 안정화

무연탄 수급안정을 위하여 석탄기금 확대에 비축을 증가하고 일부 수입탄의 장기계약을 추진하며 현 65개의 전국 연탄공급구역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공급구역 대단위화를 통한 수급안정과 소비자보호를 도모해 나

갈 계획이다.

라. 정부지원 및 가격관리제도의 개선

석탄광업육성자금에 의한 지원을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용자지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며 석탄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시설투자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석탄가격은 적정 재투자재원 및 타에너지원과 상대가격 유지를 통한 장기적인 수요조절 효과를 모색하여 가정연료의 다원화를 도모할 것이다.

(2) 유연탄

가. 유연탄 사용확대

유연탄은 80년대 들어 급격한 수요의 신장이 제철업계와 시멘트업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유연탄이 여타 화석에너지원과 비교해 볼 때 매장량이 풍부하여 공급에 안정성이 있고, 가격도 저렴하여 사용확대를 추진한 결과이다.

6차5개년계획기간중에도 연평균 4.6%씩 증가하여 1991년에는 19,820천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안정적·경제적 공급체계 구축

유연탄 공급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석탄 전용부두 건설, 수입선 다변화, 유연탄 개발수입을 추진 하도록 하며 수송비용을 최소화하여 경제성을 유지할 것이다.

다. 환경오염방지

유연탄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低硫黃炭을 최대 확보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석탄전용 부두내에 有鉛炭 進문처리설비를 설치, 微粉炭 확산을 방지해 나갈 것이다.

마. 新·再生에너지부문

新·再生에너지는 장기적으로 에너지의 안정공급 뿐 아니라, 무한정한 기술개발측면에서 볼 때, 무한정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 하겠다. 앞으로 이 분야는 新·再生에너지원 별로 기술개발정도 및 기대효과등을 감안하여 개발과제, 기초연구과제, 정보수집과제로 3분하여 실용화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민간업체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금융세계상의 지원을 강화하며, 연구개발 및 실용화촉진을 위한 기금확보를 추진하여 중요한 기초연구과제를 선택하여 국책연구 사업으로 기술개발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바. 資源부문

공업화 및 경제성장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는 직·간접으로 적지않은 정부의 혜택을 받았으나, 資源部門은 품목의 다양성 및 보유국의 다기화로 국내적으로도 아직은 정책과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아 낙후된 분야이지만,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라 하겠다.

따라서 6차5개년계획기간중에는 국내부존자원의 적극적인 탐사와 개발로 가용자원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인 향상으로 국내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면서 원료 광물의 해외 의존적인 需給構造에 비추어 탄력성 있는 輸入政策과 능동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내광업이 당면하고 있는 自然的인 제약요소와 제도적인 장애요인을 감안하여 안정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

믿는 마음 지킨 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